금화산을 오르던 개화파의 가슴엔 무엇 담고 있었나?

개화사상의 산실 신촌 봉원사

영조의 친필로 쓰인 봉원사 현판은 6.25전쟁 때 소실됐다.

절 입구 한켠에 있는 부도밭

죽은 세손 위해 영조가 원찰 삼은 봉원사
승려 이동인과 김옥균 등 개화파 산실 이뤄
불교의 평등 바탕한 국민국가건설 꿈 꾸던 곳

봉원사는 한국불교태고종 총본산이며, 갑신정변의 주축을 이룬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 개화파 인사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이동인 스님이 5년간 주석했던 갑신정변의 요람지이기도 하다.

요즘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문화가 유행이다. 한류라 부르는 이 분위기는 동남에서 한국 드라마로 시작됐다. 지금은 음식, 의류, 그리고 노래까지 여러 분야에서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역도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주로 확산되는 중이다. 얼마 전까지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여념이 없었던 우리의 처지가 갑자기 바뀐 것이다.

1876년 조선의 문호가 열리자 당시 젊은이들은 지금껏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무기를 갖고 있던 일본과 서구열강의 힘에 놀랐다. 의식 있는 젊은이들은 세상을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신지식을 이용해 구태에 머물던 조선사회를 바꿔보고 싶었다. 세계와 소통해 조선사회를 변화시킨다해 그런 생각을 개화사상이라 불렀다. 그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조선을 변화시키려 한 사람들을 개화파로 불렀다.

지금 경복궁 서쪽 사직단을 거쳐 사직터널을 지나면 독립문역이 나온다. 독립협회가 세운 독립문에서 비롯된 역명이다. 이 문은 1884년 갑신정변 후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1896년 귀국한 서재필이 독립협회 활동을 하던 1897년 11월에 세웠다. 중국사신을 환영하던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서구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염원의 표현이다. 그곳에서 금화터널을 넘어 고가 밑에서 오른쪽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봉원사가 나온다.

봉원사의 창건연원은 제법 오래되지만 사격이 커진 것은 조선 영조 때이다. 영조는 재위 26년(1750) 8월에 손자를 보았다. 세손 의소(懿昭)로 정조의 형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손은 오래 살지 못하고 영조 28년(1752) 5월 죽었다. 첫손자를 잃은 안타까움에 할아버지 영조는 영인군 시절 살던 창의궁에 의소의 묘(廟)를 세웠다. 그곳이 한성부 북부 순화방으로 지금의 종로구 통의동이다. 영조는 죽은 세손을 위해 봉원사를 원찰로 삼고 용인의 땅과 해주 수안군에 있는 토지를 지급했다. 이때 황해감사가 이미 사원전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자 수안군 땅은 본 고을에 소속시켰다.

이런 봉원사가 개화사상의 산실이 된 것은 개화에 관심이 많았던 승려 이동인과 개화파가 만나면서부터이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는 자신들이 궁금해 하는 서구문물에 대해 박규수에게 배웠다. 지금 헌법재판소 주변인 한양 북부 가회방 재동의 박규수 집은 개화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서구문물을 알 수 있는 창구였다. 1876년 박규수가 죽자 이들을 지도한 자가 유대치와 오경석이었다. 유대치는 중인출신이었으나 학식과 인격 모두 탁월하고 교양이 심원한 경론가였다. 철저한 개화사상가여서 개화파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불교를 깊이 신행하고 있었던 까닭에 개화파를 지도할 때 불교사상도 가르쳤다. 당시 이들의 행적을 적고 있는 이능화는 〈조선불교통사〉에 갑신정변은 그들이 배운 불교의 이치를 직접 세상에 응용하려던 행동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 유대치의 영향으로 개화파에는 불교를 신앙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개화파는 동지들을 규합할 때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았다. 중인출신은 물론이고 승려들이 참여도 많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인이었다.

그의 출신에 대해 봉원사라는 견해와 통도사라는 견해가 있다. 전후사정을 고려해보면 봉원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가 개화파의 일원으로 그들과 함께 개화사상을 공부하고 불교를 토론하려면 빈번하게 접촉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한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봉원사가 제격이다.

남들의 눈을 피해 서대문을 나와 봉원사가 있는 금화산을 오르는 개화파의 가슴에 무엇을 담고 있었을까? 칠흙 같이 어두운 그믐밤이나 달빛 훤한 보름밤 개화파는 봉원사에 모여 무엇을 고민하고 토론했을까?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가냘픈 숨을 쉬며 열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조선을 어떻게 부국강병으로 이끌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이다.

개화파를 조직한 목적은 불교의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외세에 대항할 수 있는 국민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국민국가란 내 나라, 내 민족을 발견하는 것이다. 중국을 주축으로 하는 동양적 질서체제에 안주하는 조선이 아니라, 세계 속의 자주독립국인 조선을 찾는 일이다. 그것은 조선왕조와 같은 봉건국가가 아니라 독립권이 보장된 근대국가의 성립이었다.

윤치호의 일기에 의하면 김옥균은 유대치의 지도를 받아 외국의 예를 따라 예산제도를 세우는 일, 행정기관의 책임분담을 마련하는 일 등을 고민했다. 그리고 조선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로 정부조직을 고치는 것을 꼽았다고 한다.

서재필은 갑신정변 37년이 지난 1941년 10월 그 사건을 회고하는 글을 썼다. 개화파는 국민들 사이에 존재했던 신분제도 철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택마련, 노비제도 폐지 등과 같은 것을 평등사상에 입각해 타파하려 했다고 적고 있다.

봉원사 승려 가운데 개화파의 일원으로 활약한 개화승은 이동인이다. 그는 새로운 문물과 해외지식에 대한 궁금증이 강해 부산에 일본불교 별원이 개설되자 그들을 통해 세계정세를 알고자 했다. 개화파의 도움으로 직접 일본에 건너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사회를 살펴보는 등 호기심이 강했다.

그의 개화 의식은 한국이 빈약해 부강하지 못한 인식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일부 있는 제도도 바뀌지 않은 데서 생긴 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그런 한계적 상황에 직면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부국강병으로 보았다. 그 방법으로 공업과 상업의 발달을 꼽았다.

먼저 공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풍부한 광산과 개발되지 않은 땅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에게 자본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본과 힘을 합해 개발한다면 한국도 무비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 상업이 발달하려면 육의전에서 배를 구입하고 일본인 상인을 고용해서 한국의 내륙과 개항장 사이에 통신의 길을 만들어 사람들이 개항장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필요한 재정은 일본정부에서 빌어 상인들에게 빌려준다면 육의전의 상업이 발전할 것으로 예견했다.

이런 그의 생각은 누구도 사회변화에 대해 예견하지 못하고 있던 당시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사회적인 제한이 뒤따르던 승려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진보적 성향은 불교계의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봉원사에 모여 수많은 밤을 지새워가며 토론하던 개화파는 정부차원에서 변화될 기미가 없자 물리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실행했다.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불과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 대부분은 희생되고, 일부는 해외로 망명했다. 처음부터 승산이 없었지만 국내의 모순을 극복하고 외세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생각한 이상이 정치현실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정변 후 3일 동안 집권한 개화파는 자신들의 이념을 정강으로 발표 했다. 내용 가운데 불교사상과 연관된 것은 평등에 관한 부분이다. 정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당시 봉건사회가 지니고 있던 신분제의 한계성을 탈피하기 위해 그들은 인민평등권을 주장했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인 여건으로 본다면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었다. 국가의 자주독립과 인민평등권에 대한 사상은 1890년대에 들어와서 독립협회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식이 확대되어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만 1880년대는 확실히 앞선 사상이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정변의 실패는 개혁에 대한 논의조차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시대변화를 말하는 젊은이들은 미움을 받았다. 자연히 개화의 불길은 시들어 갔다. 이런 개화파의 퇴조는 잠시나마 조선사회에 불교를 새롭게 인식하던 분위기도 사라지게 했다. 불교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두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5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5년만에 10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대부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검증해보세요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을 입력하셔서 무료동영상 강좌보기를 클릭하여 DVD 동영상 1 • 2부를 시청하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를 신청하세요
- 교육기간 : 누구나 2개월 완성 (국내외 제자 1000여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60일 완성) / 풍수지리(양택,음택) 포함 (90일 완성)
- 두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두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50만원, 할부가격은 17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9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4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강의 및 감정요일
대구 : 월, 화, 수
서울 : 목, 금, 토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명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서울포교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6번지 금강리빙스텔 325호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 휴대폰 010-9217-2237